

광주시, 침체한 지역 경제 견인 명품강소기업 육성

기술력 갖춘 유망중기 7곳 예비-명품강소기업 선정 연구개발·자금 등 맞춤형 지원

광주시가 침체한 지역 경제를 다시 견인할 명품 강소기업 육성을 강화한다.

광주시는 "지역 경제를 견인할 '2022년 예비(PRE)-명품강소기업' 7곳을 선정하고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덴바이오, ㈜펜퍼스, ㈜승광, ㈜전진티티에스, ㈜하이름, 한국광학기술

㈜, 21세기메디칼㈜ 등이다.

예비(PRE)-명품강소기업은 광주시가 중앙정부와 연계해 운영중인 기업성장사다리 중 첫 단계로, 명품강소기업보다 규모는 작지만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지역 유망중소기업을 평가하고 선정한다.

선정 대상은 매출액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제조업(지식서비스산업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서,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이 3% 이상인 기업이다.

지난 6월24일까지 실시한 공모에 21개 업체가 신청했으며 서류심사, 발표평가·현장평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7개사가 선정됐다.

선정된 예비(PRE)-명품강소기업은 지정기간 2년 동안 기술력 확보를 통한 신속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R&D)과제 기획, 신기술 사업화, 공정개선, '사회가치 경영(ESG 경영)' 준비 등 기업 성장 목표와 성장 수준에 따른 맞춤형 사업을 지원받는다.

또 광주시와 중소벤처기업청, 광주테크노파크, 신용보증기금 등 23개 기업지원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지원사업 연계, 기업 애로사항 공동해결, 경영, 기술, 자금 지원 등도 받게된다.

광주시는 이들 기업이 기술 성장 등으로 기업성장사다리 다음 단계인 매출액 50억원 이상의 명품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기업 맞춤형 사업을 통해 예비 명품강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매출과 고용률이 상승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더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지역기업의 성장과 함께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2017년 예비(PRE)-명품강소기업 지원사업 시행 이후 15개사를 명품강소기업으로 키워냈으며, 명품강소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이 우수한 지역스타기업 61개사, 수출 선도기업인 글로벌강소기업 34개사, 세계적 강소기업인 월드클래스 300에 6개사 등이 중앙정부 중소기업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 등을 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대전환시대 지역 리더 역할 논의 전남도, 기업인 대상 경제마당

전남도와 전남인재평생교육원은 14일 남악 스키에워딩컨벤션에서 서부권 기업인과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기 변화를 선도하는 경제 마당을 열어 대전환 시대 지역 리더의 역할에 대한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보혜양조희, 목포신항만운영(주) 등 지역 기업인과 여성경제인 전남지회,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를 비롯한 기관단체장, 도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경상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의 '팬데믹 이후의 미래, 글로벌 경영·경제 환경의 대변혁' 주제 특강으로 진행됐다.



포암호수공원 한달간 녹조라떼 14일 백일홍이 만개한 광주 서구 포암호수공원에 30여일전 발생한 녹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니명주기자mjna@kwangju.co.kr

이경상 교수는 특강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모든 산업이 디지털화 되고 기존 사업체들 간 비즈니스 모델 경쟁이 시작됐다"며 "빠르게 변하는 글로벌 경제에 다가가 성공을 쟁취하라"고 제언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사는 지역 경제인들은 이 교수의 트렌드 진단과 해법에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이날 강의는 유튜브 생중계로 동시 진행돼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참여자들의 아쉬움을 달랬다.

김영록 지사는 "코로나 한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기업인과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는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리더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도에서는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지역경쟁력 도약 미래건축 청사진 제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 공청회서 전문가·도민 의견 수렴

전남도가 14일 광주전남연구원 상생마루에서 '전남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의 비전과 정책 방향, 실천 과제에 대해 도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전남도 건축정책위원회 위원과 공공건축가, 시·군 관계 공무원,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전남 건축의 미래 청사진이 될 도 건축기본계획에 대해 열린 토론을 펼쳤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과 유튜브 동시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도 건축기본계획에 대한 발표에 이어 7명의 분야별 전문가의 지정토론과 도민 의견 청취 순서로 진행됐다.

도 건축기본계획에서 전남도는 '건축의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공공건축의 품질 혁신을 통한 지역 여건 개선 ▲민간 건축까지도 모든 사람이 향유할 수 있는 '공공재'로서 건축 관리 ▲전남만이 가진 다양한 자산을 활용한 산업 육성 및 지역 활성화 ▲적극적인 도민 참여로 함께 만드는 건축정책 등 4가지 정책기조를 강조했다.

또 '건축의 공공적 가치 구현 및 지역경쟁력을 선도하는 남도건축'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정책목표로 ▲주민을 위한 지역 맞춤형 공공건축 확대와 생활환경 개선 ▲지역자원이 이끄는 남도건축문화 정체성 확보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된 건축산업 육성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이를 실현할 6개 추진전략과 12개 실천과제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정영수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빈집 및 노후건축물 증가 등 전남이 겪는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소할 건축정책이 필요하다"며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2차 전라남도 건축기본계획'이 지역 경쟁력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건축계획의 표준 모델로 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공청회에서 나온 도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도의회 의견 청취와 건축정책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친 후 도 건축기본계획을 최종 확정 및 공고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전남도, 코로나 확산 방지 시군 합동 회의...선제 대응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전남도 등 방역 당국도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전남도는 14일 22개 시·군과 합동으로 긴급 방역 점검 회의를 열고 현장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김영록 전남지사의 방역수칙 실천 생활화와 선제적 대응 강화 주문에 따른 것으로, 정부도 BA.5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여름철 이동량 증가, 면역효과 감소 등으로 코로나 확산 국면으로 전환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남에서는 최근 1주일간 3987명, 하루 평균 570명이 확진됐으며 감염재생산지수도 1을 넘는 등 6차 대유행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전남도는 이러한 확산세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개인 방역에 대한 전방위적 홍보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감염취약시설, 여가시설,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미접종자 3차 접종, 60세 이상 4차 접종) ▲개인위생 준수(비누로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코로나 증상 시 신속히 진료받고 타인과 접촉 최소화 ▲1일 3회 이상 환기 등 5대 개인 방역수칙을 대대적으로 홍보키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확진자 수가 연일 증가하고 있어 재유행에 대비할 엄중한 상황"이라며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음 기자 dok2000@kwangju.co.kr

여름방학 어린이 과학교실 운영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과학교실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어린이 과학교실은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서구 유촌동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건, 환경, 동물 분야의 실생활용 과학을 주제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된다.

수업은 ▲보건교실의 '식품첨가물 알아보기, 올바른 화장품 사용하기' ▲환경교실의 '간이정수기 만들기, 물벼룩 실험교실' ▲동물교실의 '야생동물 알아보기, 수달 모형 만들기' 등이다.

참여 신청은 18일부터 22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분야별 40명씩 총 120명을 선착순으로 받는다. 학생 1인당 1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은 교실별 교육날짜에 오전(10-12시), 오후(2시30분-4시30분) 중 신청한 시간대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홍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에게 다양한 실생활 밀착형 과학체험교실을 제공해 과학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겠다"며 "이번 과학교실이 어린이들 스스로의 탐구심과 창의력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활차 & 힐링이 있는 남원여행

남원의 여름

숲에서 휴식 온방 서어나무숲

지리산 허브밸리

생태관광 숙박시설 에코릿지

백두대간 트리하우스

|| 숲에서 휴식 온방 서어나무숲 || 허브향이 가득한 지리산허브밸리 || 생태관광 숙박시설 에코릿지 || 나무 위 숙소 백두대간 트리하우스 || 천혜의 절경 지리산생물사육계곡

남원시
www.namwon.go.kr